

## 공감훈련프로그램 참여아동의 공감표현 변화과정 분석

김 미 영  
(청주교육대학교)

### I. 문제제기

해마다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학급이라는 큰 규모의 집단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개별적으로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아야 한다. 교사의 이러한 복합적인 역할 수행 성숙도는 학급 운영의 성패를 결정지으며,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 학급 전체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아동 사이, 아동과 아동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은 이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 수단이다. 이 때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자기표현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보이는 공감행동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한다.

공감은 상담 상황에서 청담자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상담자가 활용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무조건적 존중, 진정성과 더불어 바람직한 상담관계 형성에 이바지하는 핵심기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감은 비단 상담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학급상황에서는 교사와 아동 관계, 아동과 아동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대방의 내면세계에 대해 입장 바꿔 생각하는 태도는 사제 간이나 급우 간에 서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이런 이유로 학생 입장에서는 구성원들이 잘 적응 하도록 도울 수 있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급을 원활히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가 이번 연구에서 참여아동이 보이는 공감행동에 중점을 두는 것도 바로 공감의 이런 효과 때문이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공감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공감이 갖는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김미자(2004)는,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교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공감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전체 학교생활 적응의 점수에 있어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강경아(2004)는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교아동의 또래 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간 분석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후검사 점수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박선영(2007)은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급 내 부적응아 수용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공감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위에 언급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감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형성된 ‘공감’이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 ‘또래 간 갈등해결’ 그리고 ‘부적응아에 대한 수용도’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양적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간에게는 방법의 특성상 양적연구방법으로는 의미 있게 포착할 수 없는 내면의 영역이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 공감적 이해를 갖게 되었는지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주관적 경험과 의식세계는 분야의 특성상 양적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자연과학적 방법이 소홀히 다룬 바로 그 개인의 생활세계에서의 주관적 경험을 탐구하려고 한다.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현상뿐 아니라 개인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원인, 이유, 의미 등에 대해 탐색하는 방법이라는 면에서 현상학적 연구를 질적 연구의 하나로 분류하는데, 특히 의식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한다는 특징이 있다. 공감훈련프로그램 참여아동의 변화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체험의 세계를 탐색해 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에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현상학은 대상의 기술에 의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방법이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의식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내담자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객관화, 과학화하여 표면으로 드러내는 연구방법이며, 내담자의 경험세계를 이해하는 훌륭한 도구이다.(박성희, 2004)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공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아동의 공감적 이해를 유도해 가는 과정에서 교사가 유의해야 할 점과 주력해야 할 점 등을 안내하여 의도한 과정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아동 간, 아동-아동 간의 효과적인 공감증진을 위해 기존의 양적 연구에서 효과가 검증된 바 있는 공감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참여아동들에게 나타나는 공감행동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정하였다.

‘공감훈련프로그램 참여아동은 공감표현에 있어서 어떤 변화과정을 보이는가?’

## 2. 용어 정의

### 가. 공감표현

공감표현에 앞서 공감의 의미를 살펴보면, 공감은 일체화나 동일화와는 다르며, 주위 사람들이나 현상, 즉 공감대상과 자기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대상과 자기의 심리적인 동일성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공감은 능동적인 체험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수동적인 체험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정의들 속에 들어있는 ‘공명’, ‘민감성’, ‘감식’, ‘진동’, ‘반응’, ‘포기’, ‘수용’ 등의 술어들은 공감의 수동적, 수용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반면에 ‘수집’, ‘포착’, ‘상상’, ‘이해’, ‘지각’, ‘역할’, ‘의사소통’ 등의 술어들은 공감의 능동적, 활동적 측면을 드러낸다(박성희, 2001).

여기서 공감표현은 일상의 대인관계 속에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와 관계 맺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지각할 수 있도록 행동과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는 공감을 의미한다.

### 나. 공감훈련프로그램

공감훈련프로그램은 공감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지각, 그리고 알맞은 표현을 반복 연습을 통해 숙달해 가는 과정이다. 이 연구에 활용된 프로그램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그 속에 들어 있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알맞은 공감적 표현 방법의 훈련을 통해 공감능력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 II. 연구방법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선정 과정 및 주된 자료인 회기별 녹화자료와 보조 자료인 세 가지 검사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 1. 연구대상

#### 가. 참여아동 선정과정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는 ‘츠’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6학년 현 담임학급과 교환 수업을 하고 있는 이웃 학급의 아동 중 희망을 받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참여 가능한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에 대하여 성별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참여자 전원이 여학생이었다.

#### 나. 참여아동

참여아동에 대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참여아동 개요

애칭	성별	나이	학년	학급	참여 동기
동개마	여	13	초6	연구자 담임학급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무궁화	여	13	초6	연구자 담임학급	고운 말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다.
해바라기	여	13	초6	연구자 담임학급	시간도 남고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특마늘	여	12	초6	연구자 담임학급	지난 1학기 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보고 부러웠다.
잔디	여	13	초6	동일 교 타 학급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은 무조건 좋아서
소리	여	13	초6	동일 교 타 학급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이다.

## 2. 자료수집

참여아동별 변화과정을 알아보려고 참여아동이 작성한 소감문과 회기별 연구자가 기록한 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2회기의 과정을 녹화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참여아동의 변화과정을 알아보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참여 전과 참여 후 두 차례에 걸쳐 문장완성검사, 인지정서공감검사, 학교생활적응검사를 실시하였다.

### 가. 참여아동 소감 및 연구자 관찰

참여아동이 회기별로 공감 훈련을 위한 활동 후 작성한 소감문 및 녹화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연구자 관찰을 본 연구의 주된 자료로 삼았다.

### 나. 보조검사

#### 1) 문장완성검사

공감훈련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참여아동들의 전반적인 심리 변화 정보를 얻기 위해 초등학생용 문장완성검사지를 투입하였다. 이 검사지는 문장의 주어, 동사 부분만 제시되어 있으며 빈 여백을 참여아동이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33문항이며 아동의 가족, 친구, 학교, 자기이해와 관련된 상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 2) 인지정서공감검사

공감을 여러 차원에서 측정하여 참여아동의 변화과정 분석에 활용하고자 박성희(1997, 문음사)가 초등학교 아동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 번안하고 수정한 인지정서공감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인지공감척도 15문항, 정서공감척도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학교생활적응검사

공감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아동의 변화과정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김정환(1981)의 학교 관련 태도 측정도구와 이상필(1990)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 영역을 참고로 이영선(1997)이 재구성한 학교생활적응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총 40문항으로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참여 5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8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 3. 공감훈련프로그램 운영

연구에 활용한 공감훈련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 및 구성, 그리고 실시기간 및 횟수를 다음과 같이 기재 하였으며 회기별로 구체적인 활동을 담은 프로그램은 부록으로 실었다.

#### 가.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이 연구에서 운영한 공감훈련프로그램은 집단상담의 한 형태이다. 공감은 상호관계 속에서 더욱 잘 발휘된다. 집단상담 장면은 다분히 이를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된다. 참여아동이 초등학생임과 상담 계획이 단기임을 고려할 때 초기에는 구조화된 집단 상담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활동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공감기술훈련과 실행을 목적으로 한 중기 이후에는 비구조화 성격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프로그램의 내용은 김미자(2004), 박재룡(2001), 이옥수(1996), 강경아(2004), 박선영(2007)의 연구에 사용된 공감훈련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간에 공통 활동을 가장 많이 담고 있으며 가장 최근 초등학교에 적용한 박선영(2007)이 사용한 공감훈련프로그램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구성 하였으며 그 재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분한 유대감 형성이 공감표현의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하므로 친밀감 형성에 주력하기 위하여 초기에 걸쳐 게임 활동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둘째, 7-8회기는 주변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서 공감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인 1조로 상황극을 짜고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재구성 하였다.

셋째, 9-10회기는 실제 생활 속에서 공감표현이 자연스럽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자신의 호소 문제를 소재로 하여 이야기 나누고 공감표현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재구성 하였다.

전체적으로 매 회기 마다 목적 제시, 활동 안내, 활동하기, 소감 나누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초기에는 참여아동 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하여 간단한 게임 활동을 삽입하여 공감에 대해 안내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였으며, 중기에는 공감 반응 훈련에 중점을 두었고, 집단 내 친밀감이 충분히 형성된 프로그램의 중기에는 실제 상황에서 공감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아울러 참여아동 모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변화가 빠른 사춘기적 특성에 유의하며 활동을 운영하였다.

#### 나. 실시 기간 및 횟수

2007년 8월28일부터 9월 29일까지(2차) 방과 후, 주 1-2회 총 12회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회기 당 40분~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4. 분석방법

연구과정에서 참여아동들이 보이는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공감적 이해 부분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질적 연구들은 그 연구의 특성상, 연구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귀납적으로 해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참여아동이 보이는 다양한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공감적 이해'와 관련된 변화를 큰 맥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한 이유로 참여아동들이 연구과정에서 보인 공감 관련 표현을 분석하여 공통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기준을 살펴보면, 참여아동들은 최종적으로 공감을 드러내기까지 과정에서 그들의 공감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 드러냈는데 그 표현의 특성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중 고개끄덕임, 시선, 주의집중, 표정, 손짓, 몸짓 등 공감의 행동적 표현들을 '공감적 행동'으로 분류하고, 이해, 감정, 수용, 배려, 통찰, 반성 등을 나타내는 공감의 언어적 표현들을 '공감적 언어'로 분류하였다. 한편 이들 기준을 나타내는 근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감적 행동에서 첫째, '고개끄덕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내용에 동조하거나 이해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표현을 말한다. 둘째, '시선'은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을 의미한다. 셋째, '주의집중'은 상대방의 이야기나 행동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으는 행동을 뜻한다. 넷째, '표정'은 마음속에 품은 감정이나 정서 등의 심리 상태를 얼굴에 드러내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나 상황의 내용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다섯째 '손짓'은 공감을 느꼈을 때 상대의 손을 잡아주거나 상대의 등을 두드려주는 등 자연스럽게 그 느낌을 손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말한다. 여섯째 '몸짓'은 상대를 안아주거나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등 손짓보다 좀 더 큰 몸동작을 의미한다.

다음 기준, 공감적 언어에서 첫째, '이해'는 안다는 뜻으로 이야기나 상황의 내용, 흐름, 상대의 상태를 파악하여 표현하는 언어를 말한다. 둘째, '감정'은 말하는 이의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읽어서 표현하는 언어를 뜻한다. 셋째, '수용'은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는 언어적 표현을 뜻한다. 넷째, '배려'는 상대방을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는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다섯째, '통찰'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언어적 표현으

로 사용되었다. 여섯째, ‘반성’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 잘못이 없는가를 돌이켜보고 표현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준들 중에는 ‘공감’ 자체의 의미와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공감적 이해를 행동으로 표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변화를 드러내는데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연구의 특성상, 행동이나 언어 등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이외에 관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미묘한 변화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추가하였다.

## 5. 분석절차

첫 단계로, 총 12회기의 과정을 녹화한 자료를 수차례 살펴가며 활동 후 소감 부분과 회기 진행 과정에서 참여아동들이 보인 공감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표현 등 연구의 필요에 필요한 자료가 되는 부분을 전사하였다.

아울러 보조 자료로 활용한 문장완성검사와 인지정서공감검사, 학교생활적응검사에서 연구와 관련 있는 부분을 찾아 자료로 삼았다.

다음 단계에서는 발췌한 자료들을 살펴가면서 공감과 관련하여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위를 찾아내어 사례별로 공감의 심리학적 요소와 관련지어 분류하고 기준을 정하여 분석 및 종합하였다.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여섯 사례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각 사례 간 공통점을 추출해 보았다.

## Ⅲ. 분석결과(사례1~사례6)

이 부분에서는 먼저 참여아동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공감의 변화를 살펴본 후, 각 사례별 분석에서 얻어진 사례 간 공통부분을 추출하고 종합하여 기술하였다. 지면 관계상 여섯 사례 중 한 사례와 사례 종합한 부분만 신도록 한다.

### 1. 사례별 분석

가. 사례 1 - 동개마(여, 초6, 13세)

#### 1) 환경 및 특성

- 8세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오빠 세 식구가 생활하였다. 2년



여 전에 어머니께서 대학생 언니가 한 명 있는 새아버지와 재혼함으로써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게 되었다.

-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웃는 표정으로 생활하는 아동이다. 조금 맘 상할 듯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더라도 크게 화내지 않고 넘기는 사례가 많다. 그런 반면 여러 사람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을 많이 타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인다. 목소리도 매우 작으며 말을 끝까지 끝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그동안 이번 연구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재혼에 관한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 비밀로 삼고 있었다고 한다.
- 학습 면에서 학업성취도는 중하 정도로 학업 향상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생활면에서는 역할분담활동 시 책임을 다하고 솔선수범하여 모범적인 아동으로 평가된다. 1학기 중에 전학을 왔고 어릴 적 팔에 심한 화상을 입어 상처가 크게 보이나 그러한 점들이 친구 관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만큼 친구 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있다.
- 평소 생활하면서 힘든 점은 오빠가 항상 장난을 걸어오고 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면 어머니께서 동개마 자신만 꾸중을 하신다고 여겨지는 점이다.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에 거의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한다.

## 2) 연구과정에서 보인 공감적 이해의 변화

초기 동개마는, 프로그램 관련 활동과 연습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공감 표현들을 접하며 신기해했다.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부드럽게 잘 표현해 낼 수 있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같은 일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이나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상대방에게 주는 공감 행동을 보면, 큰 표정 변화 없이 간간히 말하는 이에게 시선을 주는 정도였다.

동개마의 경우, 중기에 들어서면서 공감 표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행동 면에서 살펴보면 단순히 간간히 보내던 시선의 횟수와 시간이 증가하고 이야기의 내용에 장단 맞추듯 고개끄덕임이 자주 나타났으며 상대방에게 주의집중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언어 면에서도, 학급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에 대해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짐작해보고 이해하는 표현,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반성해 보는 표현을 보였다. 동개마는 이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 단계를 계기로 비로소 더 깊게 타인을 공감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에는, 언어 면에서 여전히 상대를 이해하는 표현이 계속 되었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 주는 표현, 수용하는 표현, 통찰하는 표현이 나타났다. 행동 면에서는 시선을 계속 보내고 우는 친구의 등에 손을 얹고 두드려주거나 때로는 가만히 다가가 팔 벌려 안아주는 몸짓을 보이며 이야기에 따라 얼굴 표정이 바뀌고 주의를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동개마는 초기에 비해 중기와 종기로 갈수록 공감적 언어에 있어서 표현이 다양해지고 횟수가 증가 하였으며 어휘가 더욱 풍부해졌다. 공감적 행동 측면에서도 응시하는 눈빛이 더욱 깊어지고 몸짓도 단순한 동작이 아닌 상대방과 순간 같은 감정을 느낀 모습을 보였다. 동개마는 공감적 언어 면에서는 최초 '이해'의 과정을 시작으로 중기에 이르러 자신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타인도 '배려'하고 종기에 접어들어서는 자신을 '통찰', '수용'하며 최종 '감정'적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변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감적 행동 면에서 보면 '시선'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주의집중'을 하고, '얼굴표정'과 '고개끄덕임'은 더욱 마음의 깊이를 느끼게 하며 '몸짓'은 종기에 이르러서야 보였다.

다음 <표 2>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가 녹화한 자료 및 참여아동이 글로 작성한 소감문에서 동개마가 보인 공감표현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옮긴 것이다.

<표 2> 동개마가 보인 공감표현

진행과정	참여자 소감("대화", 글)	연구자 관찰(표정, 몸짓, 태도)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사람과 내 느낌이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한다.</li> <li>*"그래, 맞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소 지어줌</li> <li>*간간이 시선을 줌</li> </ul>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야 책에서요, 창수네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싶을 거 같아요. 도와달라고요."</li> <li>*친구에게 잘못하면 꼭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겠다.</li> <li>*우리 반에도 남을 괴롭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는데 꼭 일부러 그러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li> <li>*"개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눈 마주침</li> <li>*말하는 사람을 계속 바라 봄</li> <li>*고개 끄덕임</li> </ul>
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너한테는 일을 시키니까 동생이 미운 마음이 들겠다."</li> <li>*"...그럴 때 너 동생 입장에선, 내가 동생이래 두, 항상 도와주는 언니가 고마울 것 같아."</li> <li>*"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절 차별하는 게 아니예요."</li> <li>*"...오빠도 힘들 테죠. 학원에서 밤늦게 오니 스트레스도 받을 거예요.(중략) 어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걸게 되나 봐요."</li> <li>*"오빠의 마음을 인제 알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꾸중 듣게 만들려고 일러바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li> <li>*신기하게도 지금은 오빠와 엄마가 이해가 된다. (중략) 마음이 편해졌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시선 고정</li> <li>*진지한 태도</li> <li>*친구 이야기를 듣던 중 눈물을 흘림</li> <li>*눈물 흘리는 친구 옆으로 옮겨가 등에 손을 얹고 있음</li> <li>*귀 기울여 들음</li> <li>*상대를 끌어안아줌</li> </ul>

3) 연구 참여 전과 후의 보조검사결과 비교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개마의 공감적 이해의 변화과정 분석에 참고자료로 삼고자 공감훈련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보조검사를 실시하였다. 문장완성검사를 통하여 중요한 심리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검사를 비교하여 인지정서공감 정도의 변화와 학교생활적응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 문장완성검사 비교

동개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으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싫어한다고 생각한다(동개마는 학예회 때 무대에서 춤을 추었음). 현재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며 부모님은 자신을 귀찮아하고 무관심하게 대한다고 여긴다.

동개마는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크게 받고 관계를 깊이 갖기를 바라고 있으나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공감훈련프로그램 참여 후, 친구란 서로 위로와 걱정을 해주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어울려 논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끼며 부모님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선생님에 대한 감정도 한층 밝아져서 학교생활에 활기가 보인다. 중요한 심리를 나타내는 문장을 선별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실었다.

<표 3> 문장완성검사에 나타난 동개마의 변화

문항내용	참여 전	참여 후
내가 가장 행복한 때는	기억이 별로 안 난다.	가족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나는 친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플 때(다쳤을 때) 걱정이 되고 도와준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크게 관심 없어 한다.	왕눈이, 스마일걸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유행을 따른다.	어울려 놀기를 좋아한다.
남자애들은	춤추는 여자애들을 괴롭힌다.	단순하다.
선생님들은	친절하다.	아이들을 자주 칭찬하신다.
우리 엄마 아빠는	강아지를 싫어한다.	소중하다.
내가 만약 동물로 변할 수 있다면	강아지	강아지

나) 인지정서공감검사 비교

동개마는 인지정서공감 검사의 매 문항에서 증가함을 보였다.

예를 들어, ‘다른 친구를 욕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친구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라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반응하는 등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지공감 정도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자 있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슬퍼진다.’라는 문항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변화되어 반응하는 등 정서공감 정도의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4>를 통해 동개마는 공감훈련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에 인지공감 정도와 정서공감 정도 모두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동개마의 인지정서공감검사 평균 비교

척도	문항 수	역 채점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인지공감	15	4, 6, 8, 12	3.07	4.40
정서공감	15	2, 8, 11, 12, 13, 14	2.60	3.67

다) 학교생활적응검사 비교

‘내 마음 속의 비밀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문항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서 “대체로 그렇다”로 반응 하는 등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정도로 반응하였다. 단, ‘나는 공부시간에 바른 자세로 공부에 열중한다.’와 같이 학습 활동과 관계된 문항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은 동개마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 있음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단기간에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력 향상도 기대되는 바이다.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 등의 적응력 향상이 차츰 학습력 향상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 <표 5>를 통하여 동개마는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공감훈련프로그램 참여 후 학습활동 영역을 제외하고, 교사-학생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참여도, 규칙준수 등에서 모두 긍정적 변화를 보임을 알 수 있다.

&lt;표 5&gt; 동개마의 학교생활적응검사 평균 비교

영역	문항내용	문항번호	참여 전	참여 후
교사- 학생관계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정도, 교사와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의 여부 등	1, 6, 11, 16, 21, 26, 31, 36	3.12	4.25
교우관계	친구에 대한 관심 여부, 친구들을 배려하고 어울리는 정도 등	2, 7, 12, 17, 22, 27, 32, 37	3.25	4.25
학습활동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와 참여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등	3, 8, 13, 18, 23, 28, 33, 38	2.63	3.00
규칙준수	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가의 여부 등	4, 9, 14, 19, 24, 29, 34, 39	2.75	3.50
학교행사 참여	학교의 각종 행사 및 특별활동에 관한 참여여부 및 관심도 등	5, 10, 15, 20, 25, 30, 35, 40	2.50	3.38

#### 4) 사례 1(동개마) 종합

동개마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편이고 외모적으로 팔에 화상 상처가 크게 있으며 올해 전학을 온 상태이라 다소 학급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아동이다. 대부분 활짝 웃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깊은 친구 관계를 갖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은 자신을 싫어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정적으로 동개마는 몇 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새아버지, 새 언니와 친 오빠, 어머니와 함께 새 가정을 이루고 생활해 나가고 있다. 평소 동개마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가정에서 오빠와의 관계이다. 중 3인 오빠는 동개마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생기면 어머니께서 자신만을 꾸중하신다는 생각에 혼자 서러워하며 거의 매일 밤 운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개마가 프로그램의 중기와 종기에 걸쳐 다른 참여아동으로부터 다양한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공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표 1> '동개마가 보인 공감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오빠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빠의 마음을 수용하며 오히려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는 학급생활에도 영향을 끼쳐서, 참여 후 문장완성검사에서 '남자애들은-...괴롭힌다.'는 반응이 '남자애들은-단순하다.'로 순화되었다. 실제로 쉬는 시간에 같은 모둠의 남자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학용품을 짝과 나눠 쓰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중기와 종기에 걸쳐서 동개마 자신도 다른 참여아동에게 언어와 행동으로 공감을 표현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다소 형식

적으로 시선을 주는 정도의 표현들이 점차 더욱 진지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짚어주고, 받아들이는 언어적 표현들을 하였고, 얼굴표정과 시선이 진지해지며 주의집중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에는 등을 두드려 준다거나 다가가서 안아주는 등 신체적 공감 표현도 보였다. 동개마의 경우 참여과정 중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학급 생활면에서 더욱 표정이 밝아지고 담임교사와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느낌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치르게 되었던 학교 행사에서 댄스 팀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자신감 있게 춤을 춘 모습에서 이전까지 부끄럼을 많이 타고 남을 의식하던 모습은 없었다. 과정을 다 마친 후에는 수업시간에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의사를 보이고 끝맺음을 잘 하여 발표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동개마가 보인 공감적 이해의 변화를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6> 동개마가 보인 공감표현의 변화

기준	표현	초기	중기	종기
*공감적 언어	- 이해	○	○	○
	- 감정			○
	- 수용			○
	- 배려		○	
	- 통찰			○
	- 반성		○	
*공감적 행동	- 시선	○	○	○
	- 손짓			○
	- 몸짓			○
	- 표정		○	○
	- 주의집중		○	○
	- 고개끄덕임		○	○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		표정변화 없이 간간이 주는 시선	초기보다 진지한 표정과 이해가 느껴지는 고개 끄덕임	다가가 상대를 안아준 행동은 단순한 형식적인 몸짓이 아닌 깊은 감정을 느낀 모습임

## 2. 사례 종합

여섯 사례에서 보인 공감적 이해의 변화를 종합하여 공통부분을 추출해 보았다. 이때 여섯 사례 중 세 사례 이상에서 나타난 공감만을 공통부분으로 택하였다.

우선 공감적 언어를 기준으로 공통의 공감적 이해의 변화를 살펴보면 참여아동 중 해바라기를 제외한 다섯 명이 처음 보인 표현이 ‘이해’였다. 중기부터는 해바라기도 표현하면서 모두가 중기까지 꾸준히 나타낸 표현이다. 이로써 공감 변화의 처음 단계가 ‘이해’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 ‘반성’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이 과정이 이후의 공감을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중기가 아닌 종기에 표현된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감정’도 중기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의도적으로 구성된 내용의 영향을 받아 이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 상황에서 자율적인 표현으로 보인 ‘감정’ 표현은 사실상 종기에 이르러 가장 최종 단계에 나타났다.

이 밖에 종기에 나타난 다양한 표현들은 특정한 순서를 보이지 않고 개인 성향에 따라 나타났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즉 초기부터 나타난 ‘이해’를 시작으로 하여 ‘반성’을 거쳐 개인에 따라 ‘수용’, ‘배려’, ‘통찰’의 과정을 지나 ‘감정’표현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로 공감적 행동을 기준으로 한 공감적 이해 변화의 공통점으로 먼저 ‘시선’을 들 수 있다. 초기부터 중기까지 가장 계속적으로 나타난 행동 표현이다. ‘시선’은 점차 진지해지면서 ‘주의집중’과 연결되었다. 이는 공감의 훈련과정으로 구성된 경청하기와 관련이 깊으며 주의집중이 기본전체가 될 때 공감에 진전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음은 ‘고개끄덕임’인데 이 행동은 처음에는 간단한 장단 맞추기로 보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얼굴표정’이 진지해짐에 따라 단순한 고갯짓이 아니라 끄덕임에서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함께한 ‘얼굴표정’은 상황의 내용과 일치하여 변화하는 표정을 말한다.

‘몸짓’은 가장 마지막으로 표현되었는데 우는 친구에게 다가가 팔 벌려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며 손을 잡아주는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공감표현들에 비해 최종 단계에서 나타났다.

한편 전체적으로 공감적 언어로 보인 표현들은 초기에서 종기로 갈수록 어휘가 늘고 표현이 다양해지며 공감적 행동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행동 면에서 볼 때에도 초기에 나타난 표현에 비해 후반부에 보인 표현들은 더욱 자연스럽게 진지함과 깊이가 더해졌다.

아울러 이러한 공감적 이해를 받는 경험을 통하여 참여아동들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자신이 내놓았던 문제들에 대해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사를 편안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공감적 이해를 표현함으로써 참여아동 간 관계가 더욱 가까워짐을 느꼈다.

참여아동이 공통으로 보인 공감표현의 변화를 아래의 <표 3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1> 참여아동이 공통으로 보인 공감표현의 변화

기준	표현	초기	중기	종기
*공감적 언어	- 이해	○	○	○
	- 감정			○
	- 수용			○
	- 배려			○
	- 통찰			○
	- 반성			○
*공감적 행동	- 시선	○	○	○
	- 손짓			
	- 몸짓			○
	- 표정		○	○
	- 주의집중		○	○
	- 고개끄덕임		○	○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	참여아동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공감적 행동들은 종기로 갈수록 뚜렷이 다양해지고 횟수도 많아지며 행동에서 느껴지는 공감의 정도가 더욱 깊어짐			

#### IV. 논의

이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아동 간, 아동-아동 간의 효과적인 공감증진을 위해 공감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아동들이 보인 공감표현에 중점을 두고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공감훈련프로그램 참여아동은 공감표현에 있어서 어떤 변화과정을 보이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희망에 의해 선정된 여섯 아동을 대상으로 12회기에 걸쳐 공감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을 녹화한 자료 및 소감문을 분석 결과



를 주된 자료로 삼고 문장완성검사, 인지공감정도검사, 학교생활적응검사를 분석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방법 면에서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감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 방법의 특성상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인간관계 증진 효과에 관한 연구(이옥수, 1996), 아동의 공감과 도움행동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송호연, 1999), 문제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박재룡, 2001),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구(김미자, 2004),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정혜연, 2004) 등과 같이 공감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얻은 공감증진효과를 계량적으로 연구하여 주로 프로그램 자체가 연구 주제로 설정된 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의 유무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들 양적 연구에 비해 이 연구는 아동들의 공감형성에 효과를 보인 공감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정 중에 보인 아동들의 공감적 이해와 관련된 표현을 분석하고 공통된 요인을 추출하여 공감표현의 변화과정을 알아보았다. 이는 단순히 결과로서 증명되는 효과 뿐 아니라 과정에서 보이는 변화를 가시화함으로써 계량적 연구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공감적 이해에 관한 참여아동들의 내면세계의 변화를 표면화했다.

이를 위해 참여아동이 나타낸 여러 가지 공감표현들을 살펴보고, 고개끄덕임, 시선, 주의집중, 표정, 손짓, 몸짓 등 공감의 행동적 표현들을 ‘공감적 행동’으로 분류하고, 이해, 감정, 수용, 배려, 통찰, 반성 등을 나타내는 공감의 언어적 표현들을 ‘공감적 언어’로 분류하여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 분석에 임함으로써 내면적인 변화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또 다른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행동이나 언어 등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이외에 관찰 과정에서 관찰자가 느낀 표현 정도나 표현 깊이의 차이 등 미묘하고 세심한 변화부분에 대한 서술이 자료 해석을 돕는 분석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아동들이 보이는 공감표현들이 초기에서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시선을 비롯한 행동표현,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다양해짐을 관찰하고 공감의 정도와 횟수가 더해 가고 표현이 자연스러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신체의 움직임으로의 고개끄덕임과 상대를 이해하고 같은 감정을 갖게 됨을 표현하는 공감 행동으로서의 고개끄덕임을 구별 할 수 있었으며 시선을 주지 않는 경우 주의집중 여부를 짚어볼 수 있는 점들은 모두 연구자의 해석이 차지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참여아동들이 각자의 호소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소유한 사람이 비단 자기 한 사람만이 아님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해 서로 공감표현을 주고받는 경험을 계기로 스스로를 반성하거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게 됨으로써 각자 갖고 있던 호소 문제에 대해 덜 공격적거나 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본문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 조사에서 오빠와의 관계를 문제로 호소했던 한 참여아동이, 언니 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른 참여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공감표현 과정에서 스스로 오빠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현했다. 역으로 언니 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참여아동 또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며 동생에 대한 이해를 드러냈다. 또 다른 사례에서도 살펴보면 이유 모를 눈물로 자신의 감정 표현에 곤란을 겪어 일부러 감성적인 말을 삼간다는 한 참여아동은 자신의 호소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건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다른 참여아동들로부터 손짓과 몸짓 등의 공감적 행동표현을 받는 경험을 통해 눈물로 인해 부끄럽기만 했던 문제가 다소 해소된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였다. 이는 서로 간에 드러낸 문제들이 공감표현을 주고받는 경험들이 문제를 완화시켜 줌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이러한 호소문제들이 단순한 이야기거리에 그치지 않고 깊은 공감표현의 결정적 계기가 되어 엮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는데, 참여아동들이 드러낸 호소문제들은 내심 연구자를 당혹스럽게 했다. 사춘기시기의 아동들이 나름 비밀스런 개인사를 표면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여겨졌으므로 이를 드러내고 또는 타인을 공감하는 모습이 가슴을 울렸다. 평소 십여 년 넘게 학급을 운영해 온 담임교사로서 진솔한 공감표현들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연구자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주변의 메마른 관계로 인해 공감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없는지 눈여겨 볼 일이다.

셋째, 참여아동들이 공감표현을 통하여 자기표현에 자신감을 갖게 되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건강한 소통 방식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높여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 참여아동 간에 유대관계가 높아짐을 보였다.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구(김미자, 2004)는 양적 연구를 통해 보여준 결과이기는 하나 참여아동들이 학교생활적응검사에서 학습활동 영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항목에 있어 적응력 향상을 보인 점은 관련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Hartup, Glazer and Charlesworth(1967)와 Strain and Fox(1981)을 인용한 홍준표(1999)에 의하면 발달 심리학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 시절이 또래 관계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및 언어와 인지, 가치관의 형성, 요구와 감정의 표현 등 다양한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을 주고받는 경험은 여러 가지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게 된다. 사례 5의 참여아동은 참여 전에는 학급에서 친구와의 대화나 놀이 등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보였다. 아동 본인 및 어머니와의 상담에 의하면 일 대 일의 대화에는 매우 편안해 하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아이가 또래 집단에서는 언제 어떻게 끼어들어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기만 해왔다. 그런데 이 집단 과정을 거치는 동안 후기에 이르러서는 자

신의 생각을 집단원들에게 표현하고 각 회기의 시작 전이나 종료 후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활발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참여아동간의 공감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되었다. Jay Earley(2004)도 상호작용적인 집단상담 과정에서 공감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집단에서 안전감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형성되고 경험된 응집력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친밀감의 형성 및 향상을 가져오고 관계 속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학급 상황에 적용해 볼 때 급우 간에 더욱 밀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감표현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상담상황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돕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시각과 일치한다.(박성희, 2001)

한편 이번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참여아동 중 네 명의 학급담임을 맡고 있는 점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참여아동의 배경 파악 및 회기 밖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에는 이점으로 작용하였으나, 보조 자료로 활용된 ‘인지정서공감검사’, ‘학교생활적응검사’에 있어서 교사-학생관계, 급우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에 솔직한 반응을 저해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참여아동이 모두 6학년 여학생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남학생만 또는 혼성으로 그리고 학년을 달리 구성하여 성별, 연령별로 보이는 공감표현을 비교하여 연구해 볼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강경아(2004).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교아동의 또래 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자(2004).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환(1981). 학교의 물리적 환경 변인이 아동의 정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창대(역)(2004). 상호작용중심의 집단상담. Jay Earley 저, 서울: 시그마프레스.
- 박선영(2007).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생의 학급내 부적응아수용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희(2004). 상담학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박성희(2001). 상담의 실제. 서울: 학지사.

- 박성희(1997).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서울: 문음사.
- 박성희(2001). 동화로 열어가는 상담이야기. 서울: 학지사.
- 박재룡(2001). 공감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공격행동, 과잉행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호연(1999).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감과 도움행동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필(1990). 학업우수아와 부진아의 욕구 및 성격 특성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선(1997).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된 무기력과 성패귀인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수(1996). 자기노출 및 공감훈련프로그램이 국민 학생의 인간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형득(2002). 집단상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정혜연(2004). 공감훈련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준표(1999). 또래개입·집단강화, 행동훈련이 초등학교 학급에서 또래수용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12권 1호.

## Abstract

# An Analysis on the Empathic Changing Process of the Members in Empathy Training Program

**Kim, mi-young**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you have seen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quantitative research and to put the Empathy Training Program to practical use for participating children. From looking into this, the changes in empathic understanding that came to light in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 and children and children and children are sure to have that effect.

For this work, I established the following subject of inquiry:

What kind of changing processes can be seen in the empathic understanding of participating children in the Empathy Training Program?

To resolve the above line of inquiry, six female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chosen and they progressed through twelve sessions of the Empathy Training Program. The children were given a sentence completion exam, recognition work, neat writing exam and a school adaptation exam both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making data for analysis. To analyze, first, participants had one or two meetings of forty to fifty minutes each. Progress through the program's curriculum was recorded and through the repeating and copying method, to be sure participating children's empathic understanding was revealed, empathic language and behavior was routinely chosen. Next, according the above criteria I looked into visible changes of the participating children's empathic expressions, classifying and analyzing changes in empathic understanding and six instances of common changes in the emphatic understanding of the participants relationships were analyzed and put together.

Next I will summarize the findings we have seen in this research:

First, if we look into changes in common empathic understanding from the beginning, using the criteria of empathic language, each individual showed understanding at the beginning and passed and progressed through stages of care, insight and emotional expressions.

Second, when we looked at the criteria of empathic behavior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ne's line of vision and ability to concentrate one's attention was connected. Next, the act of nodding one's head looked like a brief nod at first but at the end, it was not just a simple nod but rather they could feel deep empathy. The condition and substance of the facial expression was seen to match and at the very end the child was expressive and stretched out arms to hold and pat the other person and the act of holding hands could also be seen. Among lots of empathic behavior the final stage was shown by half of the children.

Third, from the first stage to the last stage there were many cases revealed. The more the children went the more complete their empathic language became. Their vocabulary increased and became more diverse with empathic actions. Also, when comparing actions and expressions from the beginning with the end, visible expressions became more natural and sincere at the end.

The result of the research we have seen is that through receiving experience of empathic understanding, participating children showed a sense of self-confidence and they looked to make peaceful expressions while not being aggressive or defensive about problems. In addition, from understanding empathic expressions, participating children's relationships felt closer. This outcome within this group in this case will be applied and the formation of empathic understanding can be used by the children internally to solve their own problems, acquire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teachers and others. It will also contribute to smooth classroom management.